

萬 事 大 平

# 만사대평

2018년  
12월호



새롭게 바뀐 만사대평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만사형통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목 차

- 3 편집자의 글
- 기획 특집 1 4 영도다리 축제 X 깡깡이예술마을
- 기획 특집 2 8 예술가의 밥상, 네 번째 이야기
- 깡깡이 오늘은 10 깡깡이예술마을 2018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수상
- 깡깡이 오늘은 11 자랑합니다-대평동마을회
- 깡깡이 오늘은 12 경주문화답사기행
- 깡깡이, 옛 흔적을 찾아서 14 깡깡이, 역사를 찾아가다 - 호세이유 목욕탕
- 대평동 용어사전 15 노즐
- 독자기고 16 대평동 이북동네
- 독자기고 17 깡깡이...
- 칭찬합니다 18 남항동통장협의회 3통장 김갑철
- 이달의 건강상식 18 독감 예방법
- 19 퀴즈대평
- 20 광고



## 편집자의 글

어느덧 선선한 가을은 가고, 장갑과 목도리를 찾게 되는 계절이 한 발짝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추위와 마주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저희 ‘만사대평’은 가을날 깡깡이마을 곳곳에서 열렸던 크고 작은 축제를 다시 추억해보고자 이번 호는 ‘축제가 있는 깡깡이마을’을 주제로 이야기들을 실어보았습니다.

영도의 가장 큰 축제에 깡깡이마을이 빠질 수 없겠죠?

영도다리축제와 연계하여 깡깡이마을의 거점공간 곳곳에서 조립왕 선발대회, 바다버스 투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다른 주제로 찾아와 푸짐한 밥상 앞에서 예술가, 기술자, 주민, 방문객들이 함께 소통하는 예술가의 밥상 이야기도 잊으면 안 되죠. 이번 예술가의 밥상은 마을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결과를 다함께 즐기는 잔치 한마당이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가을의 깡깡이마을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만사대평’을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영도다리축제 X 깡깡이예술마을

기획 특집 1



## 영도다리축제 퍼레이드 소개

2018년 영도다리축제 시민퍼레이드에 남항동 깡깡이풍물패가 참여하였습니다.

‘남항동의 역사, 깡깡이 아지매가 나가신다’라는 주제로 깡깡이풍물패 동아리 회원, 남항동 새마을 부녀회 등 30여명이 참가하여 작업복을 입은 깡깡이 아지매들의 모습과 깡깡이마을에 울려 퍼지던 깡깡이 소리를 팽과리 등 악기를 이용해 재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한 공연을 무대 위에서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화합과 협동의 주민 축제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시민퍼레이드는 예년과 다르게 야간에 진행되어, 조명이 설치된 ‘깡깡이 호’를 제작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퍼레이드가 끝난 후 ‘깡깡이 호’를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에 옮겨 전시중입니다.

글. 남항동주민센터 강지현 주무관

## 축제를 다녀와서

영도에 있는 각 마을의 특색으로 단장을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재미나게 마을을  
표현하는 축제였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신나게 두드리며, 춤추며 한바탕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참여하며 박수치고  
춤추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 하늘 아래, 불꽃처럼 화려한  
영도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축제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구경거리, 더 좋은 먹을거리,  
더 좋은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축제였으면 합니다.

글. 이은미 주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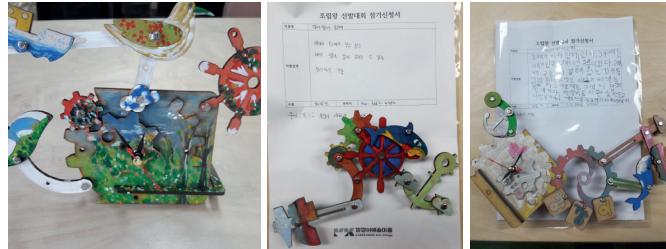


## 조립왕 선발대회

우리 깡깡이예술마을에는 조립 키트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마을공작소가 있습니다. '조립 키트'는 깡깡이예술마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배, 닷, 키, 망치 등 20여종의 모형으로 체험자가 나만의 작품을 개성 있게 조립해보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시계키트와 장식키트로 나눌 수 있고 아름답게 색칠도 할 수 있습니다.

10/12 - 10/14(금, 토, 일)

영도다리축제 기간에 축제와 연계하여 마을공작소에서는 조립왕 선발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여는 누구나 가능했고



키트 체험은 무료이나, 완성된 작품은 기증하여 스티커점수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였습니다.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한 여대생은 작품구성을 척척하더니 자연스러운 봇의 움직임에서 마치 예술가적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초등학생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투정을 부리니 어머니께서 키트 3개를 구매해서 급하게 가는 모습도 있었고, "내가 1등 할거야."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조립하는 모습 등 각양각색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조립왕 선발대회도 마무리 되었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깡깡이예술마을을 방문하여 투어도 하시고 키트체험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립왕 대회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 이춘옥 주민기자

일시 | 10/12(금), 13(토), 14(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 깡깡이 마을공작소(대평로45번길 3)  
비용 | 무료(작품 기증)  
참여 | 공작소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발표 | 10/20일(토) 개별 연락, 상품 | 각종 기념품 세트(5종)  
\*일반 유료 키트조립(3000원, 5000원) 체험은 상시 가능



## 바다버스 투어

이번 영도다리 축제기간을 통해 공식적으로 깡깡이 바다버스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축제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받아 운행예정인 깡깡이 바다버스를 타고 해설이 있는 마을투어를 할 수 있는 체험을 주말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총 8회에 걸쳐 약 100여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정시 출발하는 배에 타기 위해 깡깡이 안내센터에 도착하여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바다버스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영도다리가 도개되는 오후 2시에 출발하는 투어의 사전신청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 시간 영도다리축제 해상쇼가 함께 진행되어 바다버스를 호위하는 멋진 장관을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알록달록 갖가지 색으로 꾸며진 바다버스 외형에 마을해설사의 해설이 곁들여 원도심 일대 내항을 시원하게 누비는 모습에 축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을 자아내어 바다버스 투어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무사히 바다버스 투어를 끝내고 마을을 돌며 곳곳의 예술작품 등을 함께 해설사와 둘러보고 마을공작소에서 열린 조립왕 선발대회에 참여하고, 축제기간동안 아쉽게도 사전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마을을 방문하여 신기한 선박체험관 및 마을박물관 등 관람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무르익은 가을을 맞아 나들이객들과 축제참여자들로 주말 내내 마을이 떠들썩했음에도 친절하게 마을을 안내해주신 해설사와 마을주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많은 분들이 학수고대 기다려온 바다버스의 운행이 빠른 시일 내 정식운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다음 축제에는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글. 김 설



# 예술가의 밥상, 네 번째 이야기

기획 특집 2



깡깡이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대평마을다방이 오늘 따라 부쩍 소란스럽습니다.

공동체 부엌에서는 마을 다방 동아리에서 예술가의 밥상에 선보일 ‘단팥죽’을 바삐 만들고 계시고, 마을 다방 무대 쪽에서는 민요 동아리 어머님들이 연희 한복을 멋지게 차려 입고, 선생님들의 지도 소리에 맞추어 부산스레 공연을 준비 중이시네요. 부엌 문 틈 넘어 건너오는 단팥죽 냄새에 마을 주민들이 오늘의 행사에 대해 궁금해 할 때쯤. “오늘 우짜노~ 다 까듯다!” 마치 어린이들이 학예회 전 날 잠 못 이루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공연 시간이 다가오니 걱정이 많으신 가 봅니다.

네 번째 예술가의 밥상은 ‘소리하는 아지매’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부터 민요동아리 어머님들이 배워 오신 노래와 춤을 마을 주민들 앞에서 멋지게 선보이는 날입니다. 평균 연령이 일흔을 웃돌아도, 이 나이에 이걸 배워 무얼 하겠냐고 푸념을 하셔도, 막상 연습에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만큼이나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대평마을다방에서는 마을 다방 동아리 참여 주민들이 겨울 시즌을 겨냥해 특별히 준비한 ‘단팥죽’을 마을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번의 예술가의 밥상을 통해 음식을 준비하는 주민 분들은 이제는 웬만한 호텔의 주방보다 멋진 호흡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팥죽과 단팥죽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마을 분들의 말씀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팥죽은 ‘소금’으로 간을 하여



되직하게 쑤어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게 만든 동지에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팥죽은 ‘설탕’으로 간을 맞추어 달달한 맛으로 먹는 것이라고 하네요.

민요 동아리는 서영화 남도민요 전수자 선생님을 지도 교사로, 이남선, 탁애자, 하청자,  
한미순, 서만선, 박소영 어머님이 수업에 참여하셨고, 제주도, 경상도, 창작 민요 등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우리 민요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리하는 아지매’ 공연에는 그 동안 배워 온 민요들을 메들리 형식으로 준비하셨고,  
풍성한 공연을 위해 부산을 대표하는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에서 어머님들과  
호흡을 맞춰주셨습니다.

마침내, 경상도 민요 ‘옹해야’를 시작으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고를 두드리며  
아지매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덧 공연은 절정을  
향해 이어지고 마지막 ‘꽤지나 칭칭나네’에서는 마을 주민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들썩거리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놀고 난 와중에  
먹는 단팥죽 한 그릇에 마을에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무척이나 따뜻합니다.

망치를 이용해 배에 붙은 따개비를 따며 ‘깡깡!’ 소리를 내던 깡깡이 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예술과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마을의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예술가의 밥상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글. 이대한

# 깡깡이예술마을 2018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수상

깡깡이 오늘은(1)



## 깡깡이 예술마을 지역브랜드 최우수상

KNN NEWS

지역

부산영상위원회 신임 운영위원장에 김휘 영화감독 선임

사진 출처 KNN

깡깡이예술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대표브랜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문화대표브랜드 공모전은 우수한 지역브랜드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깡깡이예술마을은 마을의 역사와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여 부산의 해양생활문화 및 근대조선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깡깡이 바다버스, 깡깡이 마을공작소, 신기한 선박체험관 등 특색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 내 해양도시 부산의 가치를 새로운 형태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수상 소식이 전국 30여 개의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깡깡이예술마을이라는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3천만 원은 사업비 형태로 2019년에 영도구에 전달되며, 깡깡이예술마을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 자랑합니다 - 대평동마을회

깡깡이 오늘은(2)

## 대평동마을회를 소개합니다.

저희 대평동마을회는 다른 동네와 달리 규모가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어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결혼 후 지금까지 이 곳에 살며 여성위원회로 마을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래 전 이 곳에서 자리잡고 있던 어르신들이 모여 수 년 동안 재산을 만들며 운영을 해오며 자산도 늘려 오고 지금 현재 후손들인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3월 말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정기적으로  
꾸준히 마을 방역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 남녀 17명  
등이 새벽 5시30분부터  
남성위원들이 등짐분무기  
연막방역을 모기유충이 있는



하수구에 직접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여성위원들은 집게와 봉투를 들고 골목골목 다니며 동네 환경정리, 쓰레기 수거 등 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봉사를 합니다. 올해는 새로 만든 쌈지공원의 잔디 제초작업도 하며 폭넓은 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이었던 우리 마을이 깡깡이예술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다방, 깡깡이 마을공작소, 바다버스, 마을해설사 등을 양성해 우리 마을을 매력있는 마을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등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행사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 마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글. 이종렬 주민기자

# 경주문화답사기행

깡깡이 오늘은(3)



2018년 11월 4일 아침 8시, 남항동 종점문구 앞에서 백평호 구의회 의장님과 김철호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말씀과 각 단체장님의 배웅 속에 권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경주 양남에 위치한 주상절리(柱狀節理)는 분출된 용암이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여 부채꼴 형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자연의 신비함을 보고 불안하지만 잘 만들어진 출렁다리 전망대에서 주변의 경치까지 감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양동마을’로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 중심으로 형성된 씨족마을로 500여 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골짜기 따라 150여 채의 옛 기와집, 초가집들이 굽이굽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장관이었습니다. 옛 선비의 정신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임진왜란 때 지어진 건축물을 지금까지 잘 보존해오고 있어 머리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천마총(天馬塚)을 들러 옛날 신혼여행으로 왔었던 이야기하면서 추억에 잠겨 행복한 웃음꽃 피우면서 역사의 현장 곳곳을 산책하였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을 때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되는 안압지로 이동했습니다. 신라 동궁과 월지, 안압지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담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궁궐 건축물이 호수에 살포시 내려앉아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가슴이 저리도록 황홀하였습니다.

남항동 통장협의회, 남항동 주민자치센터 파이팅 하면서 또 다른 문화 답사 기행을 기약하며 천 년의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경주 문화 답사를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글. 김동진 통장님



# 호세이유 목욕탕

깡깡이, 옛 흔적을 찾아서



\* 영도구 문화관광과 지도에서 발췌함

한국 근대 수리 조선소의 발상지 대평동 깡깡이예술마을 골목골목 돌아보면 10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대평로42 목조 2층으로 된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경영한 례정탕, 호세이유 목욕탕 장소이다.

건물 앞과 옆은 도로 확장 공사로 현대식으로 변화되었고 현재 건물주는 정종필 선생님께서 9월 8일 오후 1시경 점포 수리를 하고 있어 안으로 들어가서 1층 천장을 보니 일반 주택보다 많이 높다. 이 건축물도 1952년 2월 경, 대평동에 큰 불이 났을 때 목욕탕 건물도 불화마가 덮치고 지나간 흔적이 있다. 1층 대들보의 소나무 널빤지가 촘촘하게 나열되어있는 모습을 보니 구전으로 전해오던 역사의 흔적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두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루만 늦게 보았다면 역사 속으로 살아졌을 것이다. 이튿날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니 천장 마감공사가 끝이 났다. 정종필 선생님께 물어보니 남, 여 목욕탕이고 타일 있는 쪽은 탕이 있는 곳이고 안쪽에는 샤워장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다.

휴대폰으로 이곳 저곳 담으면서 생각했다. 대평동 역사의 현장을 만사대평 신문에 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으면 한다.

글. 김동진 통장님

# 노즐(nozzle)

대평동 용어사전

항상 다니는 길에 "한라 시스템" 회사가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작업을 하지 않지만 항상 각자 집중한 작업 모습이었고 때때로 독한 냄새가 나기도 하여 어떤 종류의 기계를 다루는 작업인가 만사대평 기자로 글을 써보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틈틈이 보다가 마침 여유로운 현장모습에 오며가며 아는 안면이라 인사드리고 인터뷰 부탁 드렸습니다.

처음엔 일본인 사장에게 기술을 배운 13년 경력의 이상억 과장님은 인터뷰를 할 게 있나 하시면서 "기름 분사" 역할을 하는 기계부속인 "엔진 노즐(nozzle)"을 가지런히 나열해 주시어 사진촬영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신보다 박 부장님이 더 잘 알고 있다며 25년 경력의 박정민 부장님을 소개 해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린더 헤드에 부착해서 피스톤이 압축되어 노즐이 기름을 분사시키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피스톤이 상, 하 반복 운동으로 프로펠러가 회전되면서 배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분무기 분사 기능으로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민 부장님과 이상억 과장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이춘옥 주민기자



1



2



3

1. 1만톤~1만5천톤 대형선박용 노즐

2. 3천톤~5천톤 선박 사용 노즐

3. 발전기용 노즐

# 대평동 이북동네

독자 기고(1)

영도 대평남로 35번지~39번지 일대는 일명 이북동네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6.25 한국전쟁이 남겨놓은 피난민들의 생활주거 지역으로 30여 채의 가옥이 남아있다.

가옥이라 하기엔 너무 작은 부엌 하나에 방 하나로 따닥따닥 붙여서 지은 집으로 7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옛날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이 빈 집으로 일부는 조선소 업자들의 탈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몇몇 곳은 어려운 사람의 주거지로 남아있다. 좁은 골목에 문만 열면 앞집과 마주 보이는 불편함과 조그만 소리도 옆집에서 다 들리는 벽 하나 사이.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로 아침이면 줄을 서야하는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피난 오면서 헤어진 가족들을 혹시나 만날까 부산에서도 제일 만나기 좋은 장소로 영도다리가 가까운 이 곳 대평동에 주거를 하면서 매일 매일 영도다리에 나가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영도다리 밑의 유명 점집을 찾아 언제쯤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점도 쳐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대부분 피난민들의 생활은 가까운 자갈치 시장이나 국제시장을 주 무대로 피난 오면서 가지고 나온 옷이나 폐물 등을 물물교환도 하고 고깃배에서 싸게 산 고기도 팔면서 생활을 이어 갈 수가 있었다.

이 곳 이북동네의 집들은 대부분 4~5평으로 재개발 이야기가 몇 번 나와도 4~5평의 보상으로는 전셋돈도 안 되니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라 떠나지를 못했다. 지금 이북동네에 들어가 보면 처음 피난 나왔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2~3명 남았던 분들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때의 피난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도 그 때의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다.

\* 이 글은 대평동에 사시는 조창래 님이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 깡깡이...

독자 기고(2)

긁하고 부딪치고  
찌그러지고  
깨져서 녹 슬은 상처투성인 작은 배...

파래가 잔뜩 붙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소형 화물선...

비린내 머금은  
대구리 외두리 쌍끌이 트롤선 고등어 잡아  
선망선단 참치잡이 마구로 배 오징어  
채낚기 어선...

기타선...(기름 보급선. 유창 청소선.  
감시정. 경비정)  
다들 깡깡이 마을 부산 영도 대평동  
수리 조선소에 오른다...

들 물에 구렁이 같은  
와이어가 철도의 레일이 물밑으로 길게  
깔아진 바다 속으로 쑥~ 쑥~ 거리며  
들어가서...

하이로가 맞춰지면...

곧 낡은 철로위로 대차(수류 양용  
트랜스 포트)가 끼익끼익 거리며 거대한 배  
를 짚어지고 가만 가만 물찌꺼기로  
물으로 밀어 올려진다...

얼굴 까만 이국적 짧은이가 영도 밑 수  
도관을 통해서 넘어온 청수로 세안하듯이  
꼼꼼히 백전이 닦여진다...

하얀 우에스 칭칭 감은  
IS대원 같은 아줌마... 히잡 쓴 할머니들이...  
얼굴만큼 큰 고글을 쓰고 중무장하여  
깡깡이 망치로 낭창 낭창거리며 배를 두들겨  
조금씩 점령해 나간다...

시집살이 설움... 영감님 술 치정...  
자식들 앞가림... 친정네 걱정들...  
내 말 못할 사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깡~ 깡~ 깡~  
쭉 떨어져라~ 녹 떨어져라~  
아이고~ 내 팔 떨어진다~~

아이는 뽕뽕이 망치...  
목수는 장도리 망치...  
판사는 판결봉 망치...  
국회는 의사봉 망치...  
우리는 깡깡이 망치...

깡~깡~깡~



\* 이 글은 대평동에 사시는 통선선장님 최언석 님이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칭찬합니다

# 남항동 통장협의회 3통장 김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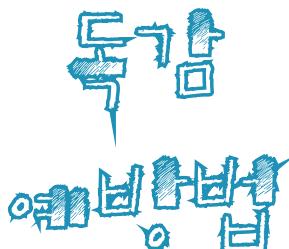
글.이종렬 주민기자

남항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께서 김갑철 통장님을 칭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통장님은 남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오래전부터 지역 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금을 매월 지원해 주고 계시며, 2018년 2월에는 ‘빛과 그림자 봉사회’를 발족하여 매월 본인의 가게에서 직접 요리를 하여 어르신들 100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양극화, 가족 관계 단절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함께 해 you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여 가덕도 전망대도 구경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며 안부도 서로 나누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항상 부부와 자녀도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와주시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우리 마을 귀감이 되시기에 김갑철 통장님을 칭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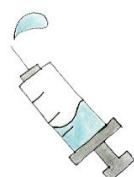
## 이달의 건강상식



글. 이은미 주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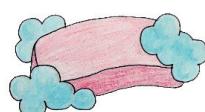
### 1. 독감예방접종

영유아, 청소년, 60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면역력이 낮은 감염 위험군은 가급적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 2. 개인위생 철저

외출 후 귀가 시와 식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한다.



### 3. 균형있는 식단

귤, 배, 고등어, 꽁치, 버섯, 녹차, 홍삼 등 영양소를 균형있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독감을 예방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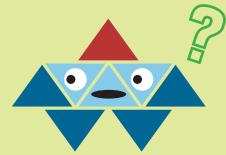


### 4. 독감 유행 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기

### 5. 기침 예절 지키기



# 퀴즈대평!



깡깡이예술마을에서는 **매월 1회** 대평마을다방에서 예술가, 기술자, 마을주민, 방문객이 주민 분들이 직접 준비하신 맛있는 **식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 )

정답을 맞힌 선착순 세 분을 뽑아 깡깡이예술마을의 기념품 패키지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퀴즈의 정답을 작성하여 깡깡이안내센터로 방문해주세요.)

## 기사, 기자를 모집합니다

-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
-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이 있으셨던 대평동 주민분
-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

##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8-8,  
2층생활문화센터 ydart2016@hanmail.net

## 생활지면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 결혼 축하, 돌 기념, 고희 기념, 업체 광고 등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 신문을 통해 전해 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 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발행처: 영도문화원

편집인: 하은지, 김슬기

주민기자: 이춘옥, 이종렬, 이은미

디자인: STORYMERGE Design

발행일: 2018년 12월

##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051-418-1863

이메일: ydart2016@hanmail.net

\* 「만사대평」은 2018 산업관광 육성 사업

2차(깡깡이 수리조선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대평마을다방 신메뉴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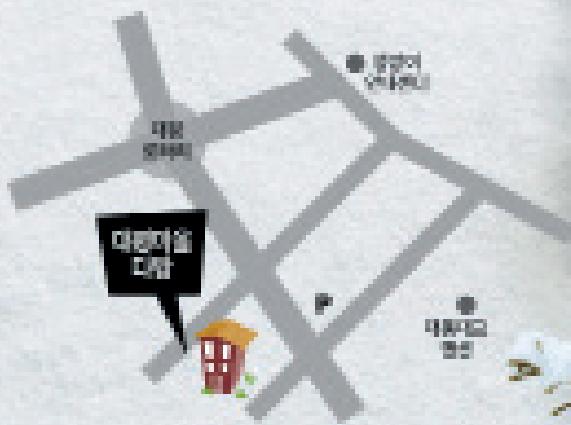
단팥죽



수제그레놀라  
요기트



수제자몽티



부산시 연도구 대평로27번길 6, 1층

Tel. 051)418-1862